

영사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다른 촬영법 보다 줄일 수 있었다.

<02>

대퇴슬관절의 접선방향 촬영에서 슬관절 굴절각도에 관한 고찰

한림대학교 동산성심병원 방사선과
양재철

목적

대퇴슬관절의 접선방향 촬영법중 슬관절을 굴곡시키는 각도가 45도 이상의 촬영법 보다 20도 굴곡시켜 촬영하는 방법이 진단정보 제공면에서 우수함을 전산화단층촬영법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슬관절의 통증이 있는 10명과 대조군으로 정상인 10명을 각각 슬관절 45도 굴곡시켜 촬영하는 Merchant view, 20도 굴곡시켜 촬영하는 Laurin view로 접선 촬영과 CT를 이용 0.5, 10~45도, 굴곡시켜 대퇴 슬관절을 촬영하였다.

결과

Merchant view는 슬관절을 45도 굴곡시키는 관계로 CT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경우도 정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Laurin view는 슬관절을 20도 굴곡시켜 촬영한 것으로서 CT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이 정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었다. CT촬영의 0~15도까지는 슬개골이 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측정 의미가 작았으며 45도에서는 슬개골이 구로 완전히 들어 감으로서 비정상이 정상치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2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CT촬영이 가장 실측에 가까운 측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

대퇴슬관절의 접선촬영법으로는 슬관절의 굴곡이 최소각도인 20도 촬영하는 Laurin view와 CT를 비교하여 CT가 우수함을 알수 있었으나, 복잡성 피폭, 비용면에서 간단하고 저렴한 일

반촬영인 Laurin view가 CT에 근접하게 정보 제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접선촬영은 Laurin view를 권하고 싶다.

<03>

종합건강진단의 유소견에 관한 연구

아산재단서울중앙병원 방사선과
조정찬 · 류명선 · 김건중

목적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함께 건강 또한 인식과 관심도가 매년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종합건강진단을 실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유지하며 또한 질병의 원인을 조기발견하고 예방과 치료로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종합건강진단의 검사결과 의외로 각종질환의 발병을 증가와 다양한 질병의 발견으로 건강진단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검사자 현황 및 유소견 비율을 연령 및 성별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아산재단서울중앙병원의 종합검진센터에서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한 43,648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질병별로 분류하였다. 연령별은 10년 단위로 20대에서 70대까지 분류했으며 질병 분류는 70여 병변으로 세분하여 결과가 나왔으나 본 논문은 남녀 유소견 비율이 높은 위염, 고혈압, 간기능 이상으로만 분류했다.

결과

총 검사자는 43,648명 그중 남자는 27,068명(68%), 여자는 16,580(32%)이며 연령별로 20대(남 946, 여 769), 30대(남 6,821, 여 4,714), 40대(남 11,763, 여 5,312), 50대(남 5,383, 여 4,090), 60대(남 1,688, 여 1,490), 70대(남 467, 여 205)로 나타났고 40대, 30대, 50대 순으로 검사자가 많았으며, 특히 40대는 전체검